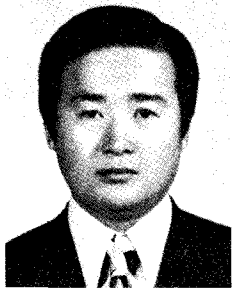


“최근 국제사료 곡물가격을 자극시키는 주요 원인들”



김 동 수
옥성씨비스상사 대표

“최근 국제사료곡물가격을 자극시키는 주요 원인들”

• 미국의 농업정책 움직임

미국은 곡물재고의 과잉으로 이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1985년에 제정된 농업법의 개정을 87년도에 의회에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목표가격을 매년 10% 하락시키고 Loan Rate의 하락폭을 확대
2) 특정 농산물의 작부 의무 폐지

3) 농업 보조금의 농장주 1인당 수취 한도액 절하 (25만 \$ → 5만 \$) 등 그러나 의회는 재정지출 삭감에 중점을 두고, 심의 하였던 바 농업 부분에서 88년에 9억 \$ 89년에 16억 \$의 지출삭감 시행으로 88년에 있어서

1) 기 발표된 88년산 목표가격의 재인하로 Loan Rate의 인하폭 압축

2) 대두 등의 작부증가를 위한 소비

3) 사료곡물의 유상 경작면적감소 등의 검토 등이다.

따라서 88년 미국의 농업생산에 끼칠 영향은 감산을 예상할 수 있으며, 농산물 수출촉진을 피하기 위한 포괄 무역법안이 88년 봄에 제정된다면 88년 봄은 미국산 농산물 가격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소련의 움직임

소련 수상 고르바초프가 경제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료부분에서 87년말부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해진다. 고르바초프는 축산물의 도입을 증가시키고, 사료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두박의 사용을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로인해 국제 대두박 가격이 87년말부터 88년초까지 강세를 지속한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사료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두박의 사용을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제까지 수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고르바초프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련은

미국산 옥수수 400만톤의 추가 구매계획을 실시치 않고, 관망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바 그 이유는 소련이 기 구매한 미국산 160만톤의 가격보다 최근 국제옥수수 시세가 앙등되어 사료용 소맥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측도 있어, 만약 옥수수 대신 소맥을 구매한다면 옥수수 가격은 큰 폭의 상승보다는 하락기미가 농후하다는 관측도 있으나 최근 사료용 소맥은 생산국의 재고부족으로 소맥가격이 옥수수가격보다 톤당 3~5\$ 정도 저가이나, 향후 옥수수가격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옥수수가격보다 약간 고가시세로 형성될 전망도 있어, 소련이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 구매할 공산이 오히려 커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미국산 옥수수 가격은 상승할 것이 확실시 될 것이다.

• 선임의 강제 지속

1) 전반적으로 세계의 경기동향이 회복기조에 있고, 교역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 미국산 소맥의 보너스 수출활발로 역시 선박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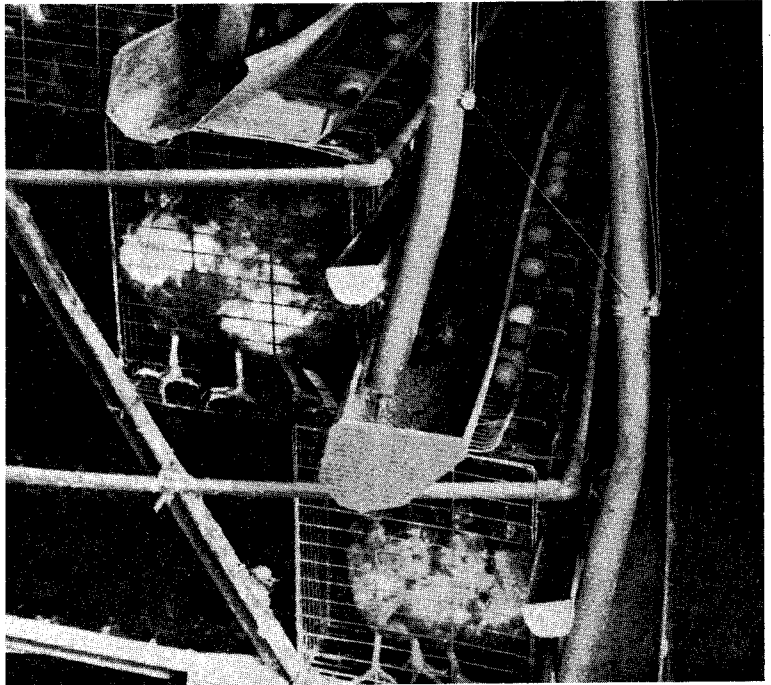
3) 그간 조선경기의 불경기로 선복 해체에 신조선이 감소하고

4) 선복량의 감소현상과

5) 선주의 자세가 고자세로 전환되고 있어

파나락스 50,000% 규모의 선임이 Gulf기준 한국까지 종전 %당 18\$대에서 25~27\$대까지 상승되어 %당 7~9\$의 부담이 추가되고 있다.

국제사료곡물가격을 자극시키는



요인들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상의 3가지 요인이 최근 및 향후 국제곡물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농업정책 움직임이 재정지출 삭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미국 대통령선거의 해에 과거의 예로 보아 곡물가격이 상승했지,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 소련 수상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정책과 미·소 곡물협정에 의한 미국산 옥수수 400만톤의 추가 구매의사와 시기문제, 선임이 계속 강세라는 사실외에도 미국내 Free Yellow Corn의 수량이 적어진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미국산 옥수수의 현 국제시세 %당 C&F 115~118\$이 120\$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이를 속명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한국의 축산업계는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여진다.

「저렴한 태국산 타피오카 C&F %당 50\$대」

상기 미국산 옥수수가격의 강세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는 태국산 타피오카는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으나, 타피오카의 결점은 단백질 부족(옥수수 대비) 색상의 문제, 기호성 문제 등으로 사용상의 제한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생각되며 이는 사료공장의 기술자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타피오카가 배합된 사료를 사용하는 양축농가의 절대적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향후 고곡가시대에 사료가격 인상요인을 상쇄하여 극소화 시킬 수 있는 품목이므로 사료업계, 축산업계, 학계에서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1) 최근 옥수수, 사료용 소맥, 수수, 호밀 등 사료곡물가격의 앙등으

로 태국산 하드·펠렛 타피오카 수요가 각국에서 증대되고 있고 각광을 받기 시작함

2) 일본은 수수가격 대비 타피오카 가격이 60%정도일때 경제성을 인정하고 있어 구매의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태국 무역협의회에서 40만톤의 타피오카 구매상담이 시작되었음

3) 태국의 타피오카는 풍작과 전년도 이월 재고량의 과다로 안정 및 고가 수출지역인 EC이외의 지역에도 수출을 많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

4) 시세는 C&F 60\$대에서 55\$→50\$→47\$→45\$대까지 폭락되었는 바, 이는 1981년 50\$대의 벽이 무너진 것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임

잡간 생각해 봅시다

축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라 그간 업계는 대정부 건의에 도입사료 원료에 대한 관세와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주장하였다.

정부는 88. 3. 1일자로 도입사료 곡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옥수수, 귀리, 호밀, 수수에 대한 관세는 현행 7%에서 2% 인하한 5%라 한다. 또한 기타 곡물에 (메밀, 조등) 대하여는 20%에서 5%로 대폭 인하한 것으로 되어있다. 동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현재 사료용 소맥은 기히 관세가 5%로 되어 있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곡물(메밀,

최근 주요원료 구매결과

단위 : C&F M/T당 \$

품 명	구매월	구매자	공급자	원산지	수 량	단 가	선 적	비고	
옥 수 수	88. 1	개별	현대	중공	6,000	106	88.1~2		
	"	사협	우화	미국	50,000	111 ⁶⁹	3~4		
	"	"	효성	"	"	111 ³⁴	3~4		
	"	"	LPC	"	"	111 ³⁴	3~4		
	"	개별	현대	P.R.C	7,500	109	BY 3월	파쇄	
	88. 2	축협	효성	미국	50,000	116 ²⁷	5		
	"	"	"	"	"	116 ⁶²	5~6		
	"	"	L.P.C	"	"	116 ²⁹	5~6		
	"	사협	카길	"	"	115 ⁸²	4~5		
	"	"	한림	"	"	115 ⁴⁵	"		
소 맥	88. 1	개별	K.P.K	EEC	50,000	96 ⁹⁵	4~5		
		사협	우화	"	"	97 ¹⁵	4		
		"	"	"	"	99 ⁹⁰	2~4		
		"	"	"	"	100 ⁹⁰	"		
	88. 2	"	"	"	"	101 ⁹⁰	3~4		
		축협	선경	"	"	107 ⁹⁵	3		
		"	"	해태	"	"	104 ⁹⁸	4	
		"	"	선경	"	"	108 ⁶⁵	4~5	
		"	"	우화	"	"	107 ⁹⁰	5~6	
		"	"	"	"	"	"	"	
대 두 박	88. 1	사협	삼미	중공	10,000	231 ⁵⁰	1~2		
	"	"	"	"	"	231 ⁴⁵	BY 3		
	"	"	선경	"	"	226 ¹²	3~4		
	"	"	효성	"	"	215 ⁷⁵	3~4		
	"	"	해태	"	"	216 ⁷⁵	4		
	"	"	효성	"	"	215 ⁷⁵	4		
타피오카	87. 12	축협	효림	태국	10,000	60 ⁹⁵	4~5		
	88. 1	개별	카길	"	"	53 ⁵⁰	BY 4		
	88. 2	축협	두산	"	"	48 ³⁵	7~8		
	2	개별	효림	"	18,000	44 ⁵⁰	BY 6		

조 등) 사료용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다. 실제 혜택을 보는 것은 옥수수인데 2% 관세인하가 배합사료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옥수수의 사용비율을 최고 50%라 가정할 때, 1%의 원가절감효과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1%의 원가절감효과를 위하여 그간 그렇게 도입사료원료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했는지 실망할 수 밖에...

관세인하로 1%의 원가절감효과가 있는데 반해 국제곡물가격은 10% 이상씩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관세인하에 대한 생색이 있을 것이고, 업계는 업계대로 불만의 소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문제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면세의 관철인데 양축농가만이 농민이나 하는 문제이다. 우리 농촌주변을 본다면 기본식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가 공산품이므로 이 또한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기본식량을 생산하는 농민과 축산물 생산하는 양축 농가에게 제공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하여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 부가세를 면제해야 된다는 말인데, 부가세와 관세가 면세된다고 축산업이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되는 것일까? 현재보다 형편이 훨씬 나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종 축산물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생산과 수요 원칙에 수입축산물이 염가로 국내에 도입될 때 사료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된,

즉 국내 생산원가가 저렴하다 하여 국내 축산물 판매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 양축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을까? 염가로 도입되는 수입축산물의 국내 판매가격이 더욱 문제가 아닐까 한다. 수입축산물의 국내 판매가격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세부시행문제, 국내 축산업자들의 적정사육규모와 단합문제,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선호동향에 대한 생산자로서의 면밀한 검토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이 더욱 시급한 일이 아닐까...

양계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사당동 1031-29
☎ 582-9181~5
본사·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읍구갈리227-5
☎ 수원 8:3423/4



세균성 질병이라면
몽땅 맡겨주십시오.

- 소독 : 축산의 기본입니다.
- 바이러스성 질병 : 백신으로 예방합니다.
- 세균성 질병 : 세균성 질병은 몽땅 **이메퀼-10**에 맡겨 주십시오. CCRD의 예방도 맡겨 주십시오. 마이코플라즈마에는 감수성이 적지만 마이코플라즈마 단독으로는 병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메퀼-10